

22.6 대 1 경쟁 뚫고 청심국제 중 합격한 광주 불로초등 조문영 양의 비결

“엄마 아빠와 매년 다녔던 해외여행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중학교 2009학년도 입시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광주 불로초등학교 6학년 조문영(12) 양은 합격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 양은 “외국 문화를 접하고 외국인들과 자주 만났더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며 “조기유학보다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한국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심국제중은 국내 유일의 사립 특수목적중학교로 지난 2005년 3월 개교했다. 공립 특목중으로는 지난 1998년 개교한 부산국제중이 있다. 부산국제중은 부산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심국제중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매년 광주에서는 1~2명정도만 입학한다.

올해 입시에서는 전체 정원 100명 중 66명을 뽑는 일반전형에 1천490명이 몰려 2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전형으로 4배수가 가려지고, 영어면접과 개인면접 등 2박3일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

조 양은 학교와 학업을 오가는 바쁜 일과 중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잡지에 듣기 전 30분 간은 꼭 영어 원서를

1. 목표 설정 확실하게

간절히 원했던 학교 입학...꿈은 여성 법무장관

2. 나만의 포트폴리오

토익·토픽 관리...경시대회 등 입상 경력 수두룩

3. 의미있는 해외 여행

외국인·문화 체험...두려움 없애고 자신감 키워

보고, 일과 중의 자투리 시간에는 한국어 책을 본다. 현재 읽고 있는 원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조 양은 이 책을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 양이 영어를 처음 접한 것은 한글을 막 배던 3살 무렵이었다. 조 양은 자식으로 된 알파벳 모양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후 유치원과 사설 학원에서 꾸준히 영어를 배웠다. 청심국제중 입학학을 위해 낸 서류의 토익 성적은 무려 885점.

조 양은 “서류를 제출할 때 각종 자격이나 상장을 제출하는데 엄마가 다른 학생들 막 배던 3살 무렵이었다. 조 양은 자식으로 된 알파벳 모양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들었다”고 말했다. 조 양의 포트폴리오에는 토익과 토픽 성적 외에 교육감상, 장관상, 각종 경시대회나 피아노·클라비·그림 대회 입상 경력 등이 포함됐다.

영어면접에서는 “리더의 자질은?”, ‘외국의 사촌이 자신의 학교에 왔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기’ 등이 질문으로 제시됐다. 조 양은 불로초를 찾는 가상의 친척에게 학교의 장점을 설명한 뒤, 청심국제중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시 청심국제중의 장점을 영어로 이야기했다.

“면접관은 대개 무표정하게 있거나 학생들의 답변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웃음을 짓는 분이 있었고, ‘well’과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분도 있었어요.”

조 양의 꿈은 법무부 장관이다. 금강실전 장관이 롤 모델이다. 상상력만으로 승부를 걸고 차별을 극복한 점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세계를 무대로 리더의 자질을 뽐내는 UN 사무총장도 조 양의 장래희망 목록에 올라 있다.

조 양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좀 많은 성격이었는데, 공부하는 것으로 욕심의 대상이 옮겨진 것 같다”며 “4학년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학교에 가게 된 만큼 중학교에서도 공부에 더 욕심을 부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신일보기자 camus@kwangju.co.kr



청심국제중에 합격한 조문영 양이 불로초 도서관에서 합격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나원침 (7659)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영

‘숲가꾸기 사업’ 뇌물받은 영광군 공무원 2명 구속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준공 여부 등으로 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산림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해 금품 전달 배경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양형권 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벌이고 있으며 주로 관내 산림조합과 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 산림조합 직원으로부터 사업 준공 여부 등으로 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산림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해 금품 전달 배경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양형권 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벌이고 있으며 주로 관내 산림조합과 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 광주·전남 대체로 맑고 포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저녁에는 다소 출렁이지만 낮에는 포근해 나들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며 “내륙지방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4도~영상 5도로 조금 출렁이지만, 낮 최고기온은 12도~15도까지 올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인 23일에는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3도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며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큰 추위’ 없어 11월 22일 (음 10월 25일) 날씨

광주	맑은후 구름 많음	2~14℃
목포	맑음	3~14℃
여수	맑음	5~14℃
완도	맑음	3~14℃
구례	맑은후 구름 많음	-3~14℃
해남	맑음	-2~15℃
장흥	맑음	-2~15℃
고흥	맑음	-2~15℃
순천	맑은후 구름 많음	-3~14℃
영광	맑음	0~13℃
진도	맑음	0~15℃
전주	맑음	-1~13℃
남원	맑음	-4~13℃
홍산도	맑은후 구름 많음	7~13℃

서해남부 앞바다=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10:00 썰물 < 02:55
 22:21 밀물 < 05:23 썰물 < 11:15
 여수 밀물 < 05:23 썰물 < 11:15
 17:25 밀물 < 05:23 썰물 < 23:45

▲해돋이 07:14 ▲해질 17:23 ▲달출 01:52 ▲달집 14:06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씨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7/14	7/11	3/13	2/13	1/9	0/9

“문근영 선행 폼하하는 이 야만의 시대” ‘태백산맥’ 조정래씨도 화났다

소설가 조정래(56)씨가 최근 거액을 기부한 탈북민 문근영(21)이 외조부의 색깔론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대가 아직도 야만의 시대를 사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21일 보성 벌교에서 열린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식에 참석한 조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스물한살 짜리 어린 소녀가 선행을 일년도 아니고, 팔년씩이나 해서

돈을 기부했음에도 친할아버지도 아닌, 외할아버지가 뺨맞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대 착오이자 역사의 퇴보”라고 일갈했다. 조씨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베트남, 하물며 공산주의 중국적인 소련과도 수교한 상황에서 5천 년 피를 나눈 동족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고 물고 “6·25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전쟁인데 그 증오를 그렇게 오래

찾고 있어야 하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씨는 또 “이번 일은 현대판 연좌제며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지성의 시대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옳게 아는 것을실행할 때 비로소 지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이은미기자 emlee@연남뉴스



5·18 협력학교 작품 전시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2008 5·18 협력학교 운영 결과보고회’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거리’라는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5·18 협력학교인 광주 금호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위직람기자 jrwi@kwangju.co.kr

원산지 3번째 속인 식육점 주인 구속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농관원 조사결과 장씨는 광주시 북구 두차레나 밭금령을 선고받은 식육점 주인이 또다시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결국 농관원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1일 2천kg이 넘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모(여·48)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자신의 식육점에서 수입 돼지고기 2천134kg을 국산으로 속여 2천33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대기자 jitee@

‘부정 시비’ 조선대 총학회장 선거 무효

부정 선거 논란에 휩싸인 조선대학교 총학회장 선거가 무효화됐다.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부정 의혹이 제기된 표를 무효 처리한 결과 유효투표를 미달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2개 투표함에 들어있던 1천여 표를 모두 무효 처리했으며 이로써 투표율은 유효투표율인 50%에 못 미치는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일 새벽 당선이 발표된 김도 후보도 당선 취소됐다. 총학생회 규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서울대 최연소 합격 만 15세 3개월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만 15세 3개월의 최연소 합격자가 나왔다. 21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자연대 수리과학부에 지원한 이수홍(15·서울 중랑고·사진) 군이 최종 합격했다.

1993년 8월생인 이군은 만 15세 3개월로 서울대에 합격, 지난 2001학년도 특자 전형에서 국민대학교교육과에 합격한 한해민(당시 만 15세 11개월) 씨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남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심문기일일 지청해 출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된다. /연남뉴스

김민석 최고위원 24일 영장 심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심문기일일 지청해 출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된다. /연남뉴스

경쟁관계 피아노 교습소 현수막 삭독

○광주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학원 교습생이 줄 것을 염려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다른 피아노 개인 과외 광고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떼어내 가져간 피아노 학원 운영자 김모(5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J(여·35)씨의 집 베란다에 걸린 ‘피아노 개인과외’ 광고 현수막을 몰래 잘라내 가져가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훔친 혐의.

○김씨는 광고 현수막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J씨가 베란다에 설치한 CCTV에 범행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걸렸다.

○경찰 조사결과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봄 J씨가 피아노 개인과외를 시작해 자신의 학원생이 줄어든 위기에 놓이자 J씨의 개인과외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종행기자 golee@